

데스크 시국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광주학살 원흉 살인마 전두환 앞잡이 이사장 물러나라.' 조선대학교 본관에 걸려있는 법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다. 학교 구성원도 '과하지 않나' 고개를 찌른다. 적의로 가득찬 구호이자 프로파간다이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7월 연임에 들어간 이사장에게 뒤늦게 전두환 앞잡이 프레임은 씌우는 사정이 딱하다. 한 때 조선대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삼고초려로 모셔온 분 아닌가.

극한 갈등으로 혁신 동력 소진

수시전형 실시시험을 치르러 학교를 방문한 고교생들은 살벌한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동창회 등 10개 단체가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를 지난 6월에 꾸려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전횡하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려 17개 항목을 들어 치죄하고 최근에는 교육부에 이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도 요청했다. 이사장도 퇴로가 없다. 물러나면 전두환 앞잡이고, 이사회를 전횡하고 학교를 사유화한 인물로 낙인찍힐 처지다. 조선대 내용의 특징은 대개 극단이다. 축출 대상이

은폐칼럼



박상하 사회경제연구원장·전 나주대 교수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유럽, 영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도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이나 구두개입을 통해 예상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금리인하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이창용 총재는 갑자기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별제를 주장하였다. 한은 총재의 말이 논란이 된 것은 8월에 발간된 37쪽 짜리 이슈 노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한국은행이 고유 업무도 아닌 대학입시를 들고 나온 것인지 방향을 불러 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국민 모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4%인데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상위권대학 진학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이고, 학생의 잠재력은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비례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기 일이

기고



김동환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이사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매년 남는 쌀의 재고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에 우리나라 쌀의 미국 수출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K-컬처(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K-푸드는 무엇인가? 비빔밥, 김밥, 떡볶이, 쌀도 만든 다양한 죽,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이다. K-푸드는 모두 쌀로 만들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들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을 받아 미국에 쌀을 직접 수출하기도 했으나 마케팅 미흡이나 저가 정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또 국내 저가의 쌀이 미국 교포들에게 유입되면서 떡볶이나 쌀 가공식품에 활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쌀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잠시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종류와 그 양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년에 약 850만~1000만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길쭉한 쌀이 70~75%, 중간 사이즈가 20~25%, 우리가 즐겨먹는 둥그란 쌀은 1~2%만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찰

조선대 개혁하려면

나 짝이내려는 쪽이나 물러설 기미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는 벼랑끝 대치가 반복된다. 갈등은 증폭되고 변주될 뿐이다. 학내 여론도 마찬가지. 한 쪽에서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사장마저 물러나면 학교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다 보니 대립을 증대하거나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극단에 중립적인 목소리는 없다. 늘 외부에는 강한 파열음만 선명하게 각인된다. 조선대 이사회가 최근 범대위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개방형이사로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시인 성금을 모아 건립한 민립대학 조선대의 요청을 광주시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조선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의증이 읽힌다. 그만큼 조선대는 광주와 멀어져 있다. 시민 여론을 냉정하게 전하자면 '조선대 또 시끄럽네'라는 건조한 반응 정도다. 냉소적인 반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이사장이 퇴진하면 학교가 정상화 되는가, 그토록 갈망하는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나, 진정한 대학 개혁이 실현될까.' 조선대 구성원은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다. 조선대가 교육 본질과 관련된 공적사안으로 갈등했다면 지역사회가 이처럼 냉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대는 두번째 같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22년 1차 퇴진 운동 때는 수시·정시 입학원서를 받고 있는 때와 맞물렸다. 이번에도 입시철이다. 타 사립대학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직원이나 나서 광주·전남지역 학교를 방문하고 신입

한국은행이 대학입시를 거론하는 이유

나 잘 하시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반면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가의 주요 기관장이 자기 분야가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 정권 인사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방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정치적인 계산에만 몰두하는 기회주의적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학생에 대입 상향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강남 학부모에게 행복학이라는 질문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위험이러나니 강남 역차별까지 등장했다. 이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로 자칫 집값 폭등을 우려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신화에 가깝다. 요즘 지방에 사는 부자들이 서울에 팔뚝한 한 채를 위해 물려준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 지상주의와 성장 중독증이 빠진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과감하게 파헤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기준 GDP 대비 103.6%로, 선진국 평균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다. 한은 총재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 탓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증가해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누적되어 방치해 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폭발적으로 들춰내고 있다. 음모론을 제기하

쌀 수출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제안

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미국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발효음식 즉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장 등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도시나 미쉐린 인증을 받은 유명 한식당이나 호텔 조리사들에게 한국 쌀과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 음식 요리 개발을 의뢰했는데, 새로 개발된 메뉴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는 곧 한국 쌀의 세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K-푸드의 인기를 타고, 한국 쌀로 조리한 음식의 맛을 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식의 개발과 홍보 방안을 정책적으로 깊이 강구해야 한다. 쌀 수출의 새로운 주력시장을 미국으로 잡아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야 할 것이다. K-푸드 가운데 쌀로 만든 음식을 K-팝·영화·드라마 등에 자주 노출되도록 연계 마케팅에 나서고 한국의 대표 음식 레시피와 쌀을 패키지로 상품으로 내놓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나 아시아 음식점이 형성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타깃 도시나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공략하거나 대형 마트, 한인 마트, 또는 K-푸드 전문 레스토랑과 협력해 무료 시식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쌀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급화 전략, 온라인 마케팅, 한국 요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현지화와 차별화된 제품 개발 등도 전략에 포함됐으면 한다.

생 모집에 전력을 쏟고 있는 '전시 상황'이다. 조선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가에서 6대1 이하는 미달로 본다. 수시모집 원서를 통상 6개 학교까지 쓸 수 있어 언제든 이 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전남대를 비롯한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암울하다.

학생 중심 대학발전 모색해야

법인 이사회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집행부와 인사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9월1일자 직원 정기인사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사회의 인사제도도 범대위의 퇴진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총장이 마련한 인사안에는 내년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공모를 담당할 담당할 주요 보직도 들어 있다. 벌써 두번째 고배를 마신 글로벌 대학 공모 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인사를 시행해도 늦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학교와 학생을 생각한다면 인사파행부터 수습해야 한다. 내용을 알고 있는 조선대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선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는지 모른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협과 글로벌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로 대학을 압박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학내 갈등이 장기화하면 법인 이사회나 범대위 모두 패배한다. 피해는 학생과 학교의 몫이다. 시민들은 조선대가 갈등을 승화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기를 바란다. 구성원 너 나 할 것 없이 개혁을 위해 목을 내걸고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구원의 손길은 밖에 있지 않다. 조선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건 구성원들 뿐이다.

社說

호남고속철 개통 연기, 공항 이전 영향 없어야

내년 개통 예정이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구간이 2년 늦은 오는 2027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전남·무안 3개 지자체 갈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다, 지난해 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광주지자체간공항을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이전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연기는 약재라고 볼 수 있다. 시와 도는 즉각 호남고속철 개통 연기로 인한 다양한 변수를 점검하고, 그로 인해 공항 이전까지 늦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홈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 공고를 통해 공사 구간에 조선시대 토기 파편과 삼국시대 묘지 흔적 등 다수의 유적이 발견돼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전남도가 내년 무

부패·기강 해이 질타장 된 전남경찰청 국감

전남경찰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그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전남경찰의 도 넘은 부패와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승진 인사 금품 청탁과 압수물 절도,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적절 수사, 불법체류자 두 동치 논란이 됐다. 더불어 민주당 위정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중양 의원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를 통한 승진 인사 금품 청탁 문제를 비판했다. 돈을 건네고 승진한 경찰관들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한 '피고인들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전남경찰의 인사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안도경찰 경찰관이 압수된 현금을 절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4년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허술한 증거물 관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부실한 장애인 성폭행 수사는 인권에 둔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content with sub-sections: 맨발걷기 (Barefoot Walking) and 맨발걷기 (Barefoot Walking) benefits.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